

'좋은벗들', 수재민은 130만명 · 농경지 대부분 침수유실

북한지역에 100년만의 대홍수로 현재 신고된 실종자가 4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실종과 사망자를 포함해 만명 이상으로 추정 된다고 북한 인권단체가 주장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월 초부터 계속된 장마로 인해 현재 신고된 실종자가 4천명, 실종과 사망자는 모두 만명 이상으로 추산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재민은 130~15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수의 협동농장을 비롯해 10만정보 이상이 침수되거나 유실됐다고 밝혔다.

황해남도 해주시에서만 200여명의 시체가 발견됐고, 함경남도 요덕군에서는 구읍리에 있는 마을이 계곡물에 떠내려가 학교와 아파트 2동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자갈밭으로 변해 실종된 사람들은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아직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강군 제방 복구장에서는 진펄이 많아 물에 떠다니는 시체를 보면서도 위험해서 건져내지 못하고 있으며 대홍수 이후 7월 말부터는 개성과 해주지역에는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고원, 단천, 원산 등지의 노인과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매일 여러 명이 죽어가고 있으나 의료 지원이나 방역대책이 전혀 없어 사망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간시설 피해는 평양양수장 파괴로 식수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평양전력 등 다수의 전력 시설과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와 제방 등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또 생산공장과 공공건물과 양덕지역 30곳등 수십개의 교량이 파괴돼 이번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로 양덕, 맹산, 신양, 요덕, 금강 성천 맹산 창도 김화군지역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나라 안팎의 정세가 긴장되고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우려해 신문 방송에서는 피해실태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다.

집을 잃은 수재민들은 학교나 농장 작업반 휴게실 등에서 거처하거나 토굴집을 만들고 초막을 지어 살아가고 있고,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식량공급 대책이 서지 않아 주민들이 감자나 보리, 채소로 근근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회령시의 경우 최근 6월까지 옥수수로 식량공급이 일부 있었으나 그 외 지역은 공급할 만한 식량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홍수가 발생해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로와 철길이 끊겨 피해지역에 비상구호미를 실어나르는 문제도 여간 심각하지 않은데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후 준전시상황으로 돌입하는 바람에, 주민들을 지원하고 쟁기는 일에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해 지역 곳곳에서 복구사업이 진행 중이나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지역이 많고 기계와 장비가 턱없

이 부족해 대부분 인력으로 진행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흥수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변변한 도구 없이 주민들이 손으로 사체를 수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지역에는 현재 수해피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기업소, 인민반, 학교 단위별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운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필요한 비상식량은 보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좋은벗들'은 말했다.

철도가 마비돼 열차운행이 중단된데다 수재민들이 생계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각도시 군 별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증명서 취급을 하지 말라는 조치가 취해졌고 증명서를 완전하게 갖추고 긴급출장을 나선 사람들이라도 심한 몸수색과 짐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국경에도 전례 없이 단속이 심해 국경경비대, 변방경비대, 공안들 모두 나서서 국경을 넘는 불법 월경자들을 단속하고 의심되는 차량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은 전했다.

철도의 경우 긴급 복구에 나서 7월 21일 황해남도에서는 해주-장연, 해주-배천, 해주-사리원간 철도 운행이 시작됐으나 양덕-고원선이 복구되지 않아 함경남북도, 량강도, 자강도에서 평양이나 사리원, 개성, 황해남도 방면으로 가려면 원산까지 가서 자동차나 버스로 갈아타야 하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북한 당국에서는 7월 25일부터 원산 방면의 임시열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해로 거의 모든 철교의 기둥이 훤틀리고 노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인력으로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초과해 철도가 정상 복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열차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긴급 출장을 가거나 바쁜 사람들은 평소보다 2-3배 이상의 비싼 돈을 주고 개인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해 원산-평양 간 대형버스비는 1만8천원, 청진부터 평양까지 가는 대절 차량의 차비는 12만 원이나 되고 있으며 물류유통이 어려워 지면서 시장에서의 식료품과 식량 값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좋은벗들'은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발표 이후 강원도 · 황해남도 · 개성에 배치된 일선 군부대들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군대가 전시근무상태에 돌입해 예년과 달리 이번 수해 복구에는 군부대 군인들이 동원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북한 당국은 비상 동원된 군복 차림의 교도대원들과 민간무력인 로농적위대와 공장 · 기업소 · 당 · 정권기관 일꾼들이 비상용 배낭을 메고, 국방위원회 겸열 속에 동원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ysan@cbs.co.kr